



3면

“혁신 경쟁으로 새 지방자치 시대 열 것”

전주매일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음 9월 9일) 제360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 RISE 계획’ 구체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전북자치도, 도내 대학
산업계와 공청회 개최

추진 현황 · 향후 방향 공유
지역 우수기업 발굴 등
긴밀 협력에 공감대 형성



10일 더메이 호텔에서 지역 대학과 도내 특화산업 주요 기업, 기회발전 특구 앵커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대학, 산업계가 손잡고 전북의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전북자치도-전북테크노파크(JB지산협력재단)는 10일 더메이 호텔에서 지역 대학과 도내 특화산업 주요 기업, 기회발전 특구 앵커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역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산·학이 함께 만들어가는 ‘전북 리리즈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공청회에서 전북자치도는 리리즈 추진 현황과 향후 기본계획 방향을 공유하며, 대학과 산업계가 직면한 어려움과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업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통해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상호 협력을 통해 발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지역 산업계는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개발(R&D)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대학별 프로젝트와 연계해 기업 수요에 맞춘 교육 과정과 R&D를 통해 지역 인재가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대학과 산업계의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지역 우수 기업 발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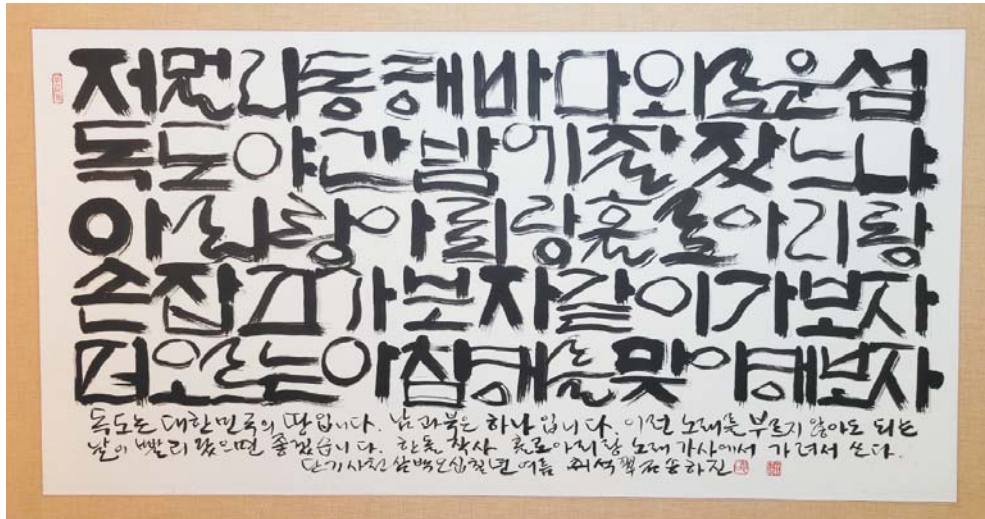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산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향후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계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기업들의 필요와 요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와 대학,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 애로를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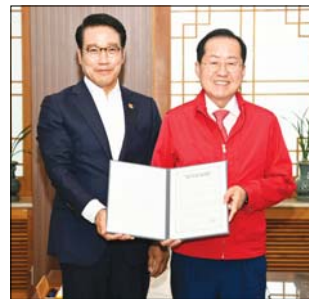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독도야...’



전주 현대미술관에서 11일 개최하는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거침없이 쓴다’ 서예 초대전을 하루 앞둔 10일, 전주 현대미술관 전시회장에서 송하진 전 지사의 작품인 ‘독도’가 전시돼 있다. ‘독도’는 송하진 전 지사가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이다. 남과 북은 하나입니다. 이선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는 소망을 담아 쓴 작품이다. (관련기사 16면)

영호남,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한마음’

홍준표 대구시장, 영호남 5개 시도지사 이어 유치에 힘 보태
“영호남 상생 발전 기폭제... 동서 화합 · 균형발전의 모범 사례”
최경식 남원시장 “모든 행정력 집중, 최종 선정에 최선 다할 것”



남원시가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대상 부지 공모에서 영호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1차 후보지로 선정된 가운데 영호남 6개 시도지사가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광주·전남·전북·경북·경남 등 영호남 5개 시도지사 공동성명에 이어 10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공동성명을 통해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강력히 지지하며 힘을 보탤 예정이다.

10일 최경식 남원시장은 대구광역시청을 방문해 홍준표 시장을 만나 부지가 100% 유류 국유지로 예산 절감이 가능해 정부의 건축재정 기조와 부합하고, 특히 남원에 제2중앙경찰학교가 설립될 경우 달빛철도에 이어 영호남 상생 발전의 기폭제로 동서 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최종 부지 선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는 달빛철도와 함께 영호남 상생 발전의 기폭제가 되어 동서 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영호남 발전을 위

서 ‘남원시는 경찰 인력 양성과 교육을 위한 자연환경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달빛철도 경유지 중심 지역으로 영호남 교류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남원시가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최적지’라며 뜻을 함께 했다.

이번 공동성명서에는 영호남 상생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았으며, 후보지로 선정된 충청권에는 현재 중앙경찰학교뿐만 아니라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국립경찰병원, 경찰수사연구원 등 기존 경찰 교육·연수시설이 편중돼 있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영호남 지역인 남원에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는 달빛철도와 함께 영호남 상생 발전의 기폭제가 되어 동서 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영호남 발전을 위

해서는 영호남이 하나 되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힘써준 홍준표 시장님 등 6개 영호남 시도지사님들께 감사하다”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남원시가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찰청은 후보지 실사 등 2차 평가를 거쳐 연내 최종 건립지를 선정할 예정으로 이번 영호남 시도지사들의 지지 성명이 남원시가 유치 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원=김기두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다.

한강,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

위원회 “시적인 산문”

10일 스웨덴 한림원의 노벨상위원회는 한국의 한강(53·사진)을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 발표했다.

매츠 말름 종신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작가의 ‘역사의 상처와 직면하고 인간 삶의 부서지기 쉬움을 노정 한 경멸한 시적 산문’을 높이 샀다고 말했다.

말름 위원장은 1시간 전 수상자

통보 전화에서 한강은 “다른 날처럼 보낸 뒤 막 아들과 저녁을 마쳤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노벨 문학상은 이날까지 121명이 받았으며 이 중 한강은 18번째 여성 수상자다.

이웃 일본에서는 1968년의 가와바다 야스나리와 1994년 오오젠자부로가 수상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 라빈드라라드 타고르가 1913년 최초로 수상했다.

/뉴시스



임실군의회의회
IMSIL-GUN COUNCIL

축! 전주매일 창간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

임실군의회의회

